



정교회주보

제2477호

2024.06.1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메데오라의 수도원 탐방 2> 바를라암 수도원(사진)은 16세기 초에 설립되었지만 14세기에 처음으로 이 바위에 정착한 고행자 바를라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모든 성인의 이름으로 봉헌된 성당은 1541년경에 완공되었다. 박물관에는 삽화가 있는 사본, 비잔틴 시대 이후의 휴대용 아이콘, 금으로 수놓은 제의,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품 및 은세공품 등의 성물이 전시되어 있다.

부활 후 제7주일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티혼 주교
(제6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2,3 응송 사도경 78~80
- 승천 찬양송 257
- 승천 입당송 257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성 교부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승천 시기송 257
- 사도경 : 사행 20,16~18; 28~36; 260
- 복음경 : 요한 17,1~13 105
- 승천축일 성모송 259
- 승천축일 영성체성혈송 25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찬양송'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과 자연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들에 핀 꽃을 가리키시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을 덮는다고 말씀하시는 복음경 본문을 자주 인용합니다.(마태오 6,29)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루살이 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그 자녀들은 더더욱 아름답게 입히실 것이 분명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라고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맺는 한 측면일 뿐이고, 그나마 가장 심오한 측면도 아닙니다.

자연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향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화의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의 은밀한 원인이고 화살표입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고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히브리 서신의 저자는 희망을 “영혼의 닻, 안전하고 확실한 것”(히브리 6,19 참조)으로 묘사합니다. 닻이 없는 배는 해안가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닥칠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어떻게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좌절감에 힘들어하고 숨막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망이나 절망이나 좌절감이 자신을 짓누르고 압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유포피아적인 희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시시때때로 움직이거나 변동하는 것에 자리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자리합니다. 이 희망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구름 뒤의 태양처럼, 삶의 시련 뒤에도 늘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밟고 있는 가지가 부러져도 계속 지지귀는 새 나이팅게일(밤피꼬리) 같습니다. 계속 지지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땅이 흔들리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희망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로마 5,5)라고 기록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데,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히브리 10,23)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시련, 문제, 폭풍우 속을 지나고 있다 해도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히브리 13,5)고 보증하십니다. 그렇기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솟아나 독수리처럼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이사야 40,31 참조)

그러니 우리는 용기와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방향기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기쁨 4

니코폴리스와 프레베자의 멜레티오스 대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생각

우리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려고 결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덤 속에 그대로 묻혀 있지 않으심으로써 생명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요한 11,25) 그 대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만일에 누군가가 ‘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또는 내 삼촌이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인상이나 느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 자신들 앞에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부활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사십일 동안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글쎄, 어떻게 이 축복 받은 사도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사도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처형되

었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자연적인 죽음을 맞은 오직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또한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십자가와 순교와 교수형과 칼로 처형되는 것을 견뎌왔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다시 둘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만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속거나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지닌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머릿속에 지닌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았다면,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철인지, 나무인지, 불꽃인지 말입니다. 실체적이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며, 구체적인 유형(有形)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살아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열두 명이 모두 함께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부활을 예상하고 기대했습니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22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부활절 기간 종료

지난 수요일(12일)로 40일간의 부활절 기간이 끝나고, 목요일(13일)에는 주님의 승천 축일을 맞아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부활 축일을 합당하게 경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알림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2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지난 주일(9일), 안식 2주기를 맞이하여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묘소에서 간략한 추도식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도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전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실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서울 성당 신자들 등산 나들이

지난 주일(9일) 점심 식사 후, 로만 대신부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신자들 약 20명이 서대문구 안산으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약수터 근처에서 성수식을 하고, 준비한 과일과 간식을 먹으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하산 후에 식사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분심 없는 기도

이집트의 테베 지역 사람인 시소이스 성인은 성찬예배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거처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러자 수도서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소이스 성인에 대해 잘 모르던 스키티의 일부 수도자들은 성인을 보면서 그가 악령에 걸려 추종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오랜 수도 생활을 통해 시소이스 성인에 대해 잘 아는 수도자들은 성인이 기도 속에서 분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대화를 피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